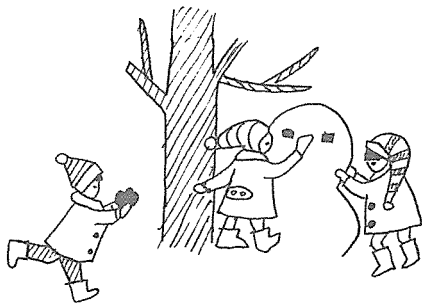


응금 學長



孫 哲

다각(多角)스런 사랑들의 도가니

중일(中日)전쟁이 바야흐로 한창이고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받기 전 무렵이었겠다.

내 의학교가 있던 중국 칭다오(靑島)란 곳을 뱃길로 가려면 13노트 시속(時速)인 3천톤 급 연락선을 인천항(港)에서 타고 황해바다를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꼬박 이틀 밤낮을 흔들려야 했다.

처음엔 죄다 생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수인사를 나누게 되고 금시로 친숙해져 지루함을 달래야 하는 3등 객실(客室)에서였다. 한번은 바로 옆에 누워있던 머리칼이랑 수염이 온통 희여버린 한 일본 노인이 내가 의학생임을 알고 나서, 『그러면』 하더니 다짜고짜

『여자가 마흔이 넘으면 어째서 경도(經度)가 없어져 버리는지 아는가?』

재우쳐 말을 건네왔다. 어리둥절 망서리고 있는 나는 제쳐놓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그네들까지 돌아 보며

『말이지 아낙들이 그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는 구실을 다 한게 아니겠나, 그러기에 인젠 솃제 그 것만을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는 조물주의 뜻이지 뭐이겠나...』

갈갈대는 양이 능청맞거나 되통스럽기는커녕 어딘지 애처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일제(日帝) 군벌들이 어쭙지않게 저 지른 전쟁에 휘말려 젊은이들이 싸움터

로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권세에 알랑거리는 여우같은 무리의 미친 듯 날뛰는 독기와 고문이 무서워 살고싶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숨을 죽여야 했던 백성들이었다.

그러기에 때·곳·인품·체면따위 가릴 것 없이 내뱉는 그러한 외설(猥說) 아닌 외설만이 힘을 앗긴 대중이 누릴 수 있는 오직 한가닥 언론자유였다. 그 백발노인이 토해낸 말의 참 뜻이 앞을 내다본 생물학적 통찰이었던지 아니면 정치 폭력에 짓눌린 지성(知性)이 견디다 못해 터진 사회심리학적 역설(逆說)이었던지 간에 말이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내 스스로가 반백(白)이 되어버린 시방, 같은 지구촌 어느 고정된 모서리에 모여 살고 있는 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빛고 있는 연애와 섹스에 대한 리얼리즘 한 마당.

예쁘장한 낯선 여인이 새로 나타나면 사나이들 눈길이 하나같이 뒤집혀진다. 금방 다각(多角)스런 사랑들의 도가니이다. 못내 한 사나이의 품에 그녀는 안기게 되고 만다. 나머지는 모두 풀죽어 심하면 두문불출이 돼 버린다. 그러다가도 애인만 생기면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되산다. 실인즉 남남이면서 부부처럼 버젓이 동거하는 커플들은 한 시각도 서로 떨어지려 들지않고 칩간길까지 줄줄 따라 다닌다. 또 다른 곳에 살면서 달에 한번 찾아 오는 애인과 속삭이며 지새우는 한 밤을 위해 술한 날들을 마냥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나이 그리고 아낙.

너무 오랜동안 공방(空房)인 탓으로

늘상 잠 못이루는 밤이 돼버렸다며 호들갑스럽게 수다떠는 아내, 또 한밤도 거르려 들지 않는 끈질긴 보챤을 미처 충족시켜 줄 길이 없으니 임포텐스가 된게 아니냐며 울상인 남편, 등등.

이렇듯 흔해빠진 주간지어나 실려있을 삼문짜리 멜로드라마가 평균연령 72.5세인 복수 주인공 백여명의 남여가 수용돼 있는 이른바 양로원(養老院)에서 연출되고 있다면 또한 남의 프라이버시를 무뎠은 외설이라고 꾸중일 것만 같다.

뿐이라 또 어디선가는 2백50명의 고령자들에게 물었는데 일혼 살이 넘은 남정네들의 30%가 섹스를 바랬고, 달에 서너번이란 숫자도 있었다. 여성은 그렇지 못한 대답이었으나, 사실을 까헤치면 남여 차이가 있을 리 없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란다.

못지 않은 궁금중이 내게도 있다.

곧 80 넘는 남성에게의 아침 인사를 진지운운 대신 “간밤에도 재미 보셨는지요” 한 다음 얼굴 근육섬유의 변화를 컴퓨터로 살살히 살펴 보았으면 싶다. 또 80이 넘는 여성들이 처녀였을 시절에도 지금처럼 생식(生殖)과 섹스가 완연히 분리돼 있었다면 그래도 그때처럼 그랬겠는가 ○×로 답을 받아 봤으면 하는 것이다.

아름든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인간 건강의 척도임을 세삼 평가 받아야겠고, 여든이 넘었대서 섹스에 무관했던 위대한 예술가나 대성한 학자가 있었거든 손꼽아 헤아려 봤으면 싶다.

간호학교 학장을 지내면서였다.

숫된 학생들의 총명스레 번득이는 검

은 눈동자, 푸더분 복성스런 볼따구니 터질 듯 부푼 앞가슴, 팽팽히 퍼져버린 엉덩이 ○○○××× …… 에 넋을 잃고 섰노라면 닥치는대로 꿀떡꿀떡 주어 삼켜 버리고 싶은 충동에 안절부절 못하게 될밖에 없게 된다. 모르는 사이에 내 두 팔이 그 중 하나의 양 어깨를 건네짚고 위로부터 발끝까지의 그녀를 뚫어지게 훑어 나리는 것이다. 급기야는 뒤로 반바퀴 뺨 돌려놓기 바쁘게 힘을 다한 내 바른 손바닥이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철거덕 후러치는 것이다.

그리고는,

『네 애인보다 더 행복한 놈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모두 들으라는 듯 외치는 것이다.

『오메에… 아퍼라…』

음마아 학장님 바라이 참말로 응큼해 야…』

이런 행복을 하루면 몇번이고 되풀이 하는 동안 얻은 영광스런 이름이었다.

섹스란 젊음들 끼리만의 독점물일세라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의 것이다.

섹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 자체의 과제인 것이다.

(필자 = 전남대 명예교수 · 의박)

생활과학 ●

여행의 敵…

멀미 退治요령

자동차나 배·비행기등을 타고 갈 때 심한 멀미로 모처럼의 즐거운 여행이 고행이 되는 수가 있다.

특히 일행중 어린이가 있는 경우 멀미는 불가피한데 매킴즈 최신희가 소개하는 멀미퇴치의 최신희학 정보를 들어 본다.

▲음식 -여행 떠나기전 식사는 가볍게 한다. 술과 담배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속이 빌 경우가 가득 찾을때 보다 멀미가 덜하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으므로 식사를 하되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가볍게 할 것.

▲멀미약 -매약의 멀미약은 대부분 그 주성분이 항히스타민제이므로 약을

먹고나면 졸음등을 동반하게 된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이점에 유의할 것.

멀미약은 약을 먹고나서 1시간쯤 전에 미리 먹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멀미 증세가 나타난 후에 약을 먹으면 효과가 덜하다.

멀미약은 종류에 따라 약효의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약효지속시간을 미리 알아 놓아두는 것이 좋다.

▲위치 -자동차나 배 비행기를 탈 때에는 진동이 가장 적은곳에 자리를 잡는다.

비행기에서는 날개 위쪽, 배에서는 수면에 가까운 선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앞자리가 가장 멀미가 덜한다. 장소

멀미는 내이의 지각과 시각사이의 불균형에서의 는 것이므로 이를 완화시켜 주려면 반쯤 몸을 눕혀 기대어 앉은 다음 시선을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고정시킨다.